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

2016년 12월 1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11일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12. 10(토)	담당부서	에너지신산업진흥과 전력진흥과
담당과장	허정수 과장 (044-203-5390) 신용민 과장 (044-203-5260)	담 당 자	김인곤 사무관(044-203-5394) 김태현 사무관(044-203-5264)

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 특례요금제 도입 검토

- 3년간 전기차 충전 기본요금 면제, 전력량요금 50% 할인을 통해 운행비용 부담 완화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**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하는 내용의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.**

○ 산업부는 **주행거리, 충전인프라, 유인책**(인센티브) 등 전기차 보급을 저해하는 **3대 걸림돌 제거**를 위해 **그간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**해왔으며,

* 전기차 구매보조금 상향(7월, 1,200→1,400만원), 공공기관 전기차 의무구매 비율 확대(7월, 25→40%), 고밀도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(8월), 전기차 전용보험 개발(10월) 등

○ **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**해, **내연기관 차량을 뛰어넘는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**하기 위한 **유인책**(인센티브)의 일환으로 **전기차 특례요금제를 마련**했다.

□ **전기차 특례요금제**는 **'17. 1월 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**하며, 전기차 **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** ① **기본요금은 전부 면제**하고, ② **전력량요금도 50% 할인**한다.

○ **연간 15,000km를 운행하는 운전자**의 경우, **특례요금제 도입**으로 인해 **전기요금 부담은 기존 40만원에서 13만 5천 원으로 대폭 감소**하며,

* 개인용 완속충전기로 저녁시간대 충전하는 사용자를 가정함

○ **충전사업자가 구축하는 급속충전기의 경우,** 전기요금 부담완화로 **운영비용이 줄어듦**에 따라 **전기차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충전요금(현재 평균 313원/kwh)도 인하가 기대된다.**

< 특례요금제 적용 이전·이후 비교 >

구분	이전		이후
	완속충전기	급속충전기	
기본요금(月) ('16.8월부터 50% 할인중)	1만1천원	7만5천원	0원
전력량요금	사용 kwh당 52.5원 ~ 244.1원 (시간·계절별 상이)		50% 할인

* 전기차는 1kwh의 전기로 6km가량 주행 가능

□ 산업부 관계자는 "**전기차 충전요금 할인**을 통해 **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.**"라고 기대하고,

○ "**동급 휘발유 차량의 연간 유류비가 200만 원**이라면 **전기차는 10만 원대로 운행 가능하므로 운행비용 측면에서 크게 경쟁력을 확보**할 수 있게 되었다."라고 말했다.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김인곤 사무관(044-203-5394), 전력진흥과 김태현 사무관(044-203-52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